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이병수



며칠 전 과천시 공무원 네 분이 필자가 살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빌링턴시와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 방문했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한국의 고등학교생, 지도교사 등이 내년 1월부터 빌링턴에 오게 될 예정이다. 앞으로 국제화의 흐름에 따라 한국의 타 도시들도 과천처럼 외국과의 교류가 늘어날 것이라 예상된다.

특히, 한국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깊은 관계를 맺어 왔기 때문에 미국인과의 접촉이 더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인과 미국인이 어떻게 다른가 필자가 평소에도 느낀 점을 몇 가지 적어 본다.

첫째는 친절이다. 대체로 미국인은 사람을 마주치면 동네에서든, 일하는 곳에서든 모르는 경우에도 웃는 얼굴로 지나가거나 또는 "하이"라는 말을 던진다. 남나 노소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인사를 건넨다.

작은 도시로 갈수록, 또한 북부보다 남부에서 그렇다. 이 때문에 '서던 호스피털리티'(남부의 친절함)이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다. 북쪽 출신의 사람들은 이것을 우선 같다고 싫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남부가 북부보다 더 친절한 반면 인종차별은

더 심하다. 교회에서나 사적으로 만나서 모임에서 백인과 흑인의 접촉이 드물다. 미국인이 친절하다고 해서 한국에서 생각하는 친한 친구의 개념으로 이해했다가는 나중에 큰 실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친절은 이 나라 사람들의 몸에 밴 습관이고 문화이지, 상대방에 대하여 큰 호감

미국인은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

이 있다는 표시는 아니다. 또한 호감이 있다 해도 공과 사는 분명하게 선을 긋기 때문에 웬만한 청탁은 들어주겠지 하는 생각을 하면 실망하기 쉽다.

둘째는 프라이버시이다. 이곳 사람들은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을 꺼린다. 특히 결혼관계나 재산관계의 경우 처음 만난 사람에게 묻는 것은 실례다. 한국인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사는 집이 얼마나 큰지, 가격이 얼마인지 스투잡없이 묻는 경우가 있다. 몇 살인지, 결혼은 했는지, 언제 할 것인지 묻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보통 여행이나 취미, 영화나 책 등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만난 사람들과 한다.

셋째, 초대 개념이다. 한국의 경우는 손님을 초대했을 때 음식을 얼마나 잘 차렸는지, 술이 얼마나 고급인지, 또한 손님들은 얼마짜리 선물을 마련해야 하는지 등에 신경을 많이 쓴다. 미국의 경우는 초대받았을 때 뭘로 오는 경우가 많고, 주인도 거기에 신경을 잘 안 쓰는 편이다.

미국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는 모임 자체를 즐긴다. 무엇을 얼마나 잘 차렸는가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 가끔은 한국 분들이 미국 집에 초대받았다가 간식 수준으로 나온 저녁 식사에 실망도 하고 배가 고파서 집에 돌아와 김치와 밥을 저녁으로 다시 먹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시간의 문화 교류에서도 미국 측은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점차 확대할 것을 바라지만, 한국 측은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길 원하는 경향이 있다.

여섯째, 미국은 자발적인 활동을 중시한다. 미국의 경우는 자매결연을 할 때 문화교류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이 국제교류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민간위원회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여 계획 및 준비는 물론 파견단 구성까지 스스로 한다. 시청의 관료들은 필요에 따라 도와주지만 교류와 관련해서 직접 나서거나 적극적으로 재정을 지원하지 않는다.

반면에 한국은 시의 사업으로 시작하면서 학부모나 지역유지들이 문화교류에 앞장서기 힘들고, 따라서 그들의 의견 반영이 미미하다. 시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몇 년 동안 쌓아 온 관계가 하루 아침에 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각 국가의 역사와 문화가 다르므로 나라마다 사람들의 사고 방식도 물론 다르다. 어느 쪽의 사고방식이 옳고 그른가를 가릴 수는 없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다만, 상대방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면 공정한 오해를 하지 않으면서 더 쉽게 소통하고, 지향하는 목표를 더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美 엘렌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 칼럼



이상혁

베이글너, 초콜릿 복근을 가진 연예인들이 대중매체를 타고 알려진 후 일반인들도 저마다 몸매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따라 뷰티시장에 변화가 생겼다. 따라 갈수록 사람들의 뷰티에 관한 욕구도는 높아만 가고 이를 놓치지 않고 개발해 내는 미용관련 기술도 진보해 나가고 있다. 그중 비만관리는 식이요법과 운동만으로 불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날씬한 몸매일 지라도 특정 부위의 비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여름철 뱃살 고민되시죠?

지금까지 가장 보편화된 방법은 지방흡입이었다. 하지만 지방흡입은 통증이나 마취 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염려해 많은 사람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수술이기도 하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수술이나 절개가 없는 시술법이 고안됐다. 마취나 수술 없이 지방을 분해하는 시술이 미국 FDA와 한국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은 것이다. 정확한 허가내용은 비침습적 지방분해술이다. 비침습적이라는 표현은 수술이나 절개가 없다는 의미다.

기본 원리는 지방세포를 차가운 온도에 노출해 파괴시켜 분해하는 방법으로 뛰어난 열구리 살과 뱃살 등 부분적인 지방을 빼는 방법이다. 미국에서는 이 같은 원리의 새로운 비만

치료법인 '젤릭 냉동지방분해술'이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 록스 앤더슨 박사가 창안한 시술법으로 자온에 노출된 후 지방층이 손상되는 피부질환에서 고안한 방식이다.

이 치료법은 시술부위에 젤 패드를 얹고 흡입기를 장착하되, 표피를 보호하고 에너지가 지방층에 보다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아프지 않으면서 지방세포를 없애는 방법으로 통증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젤릭의 특징은 지방세포가 특정한 차가운 온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아포토시스(Apoptosis, 생체 내에 적절한 신호가 전달돼 세포가 자연적으로 사멸하는 메커니즘)라는 사멸작용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원치 않는 지방세포만이 선택적으로 제거된

다는 점이다.

이 시술은 열구리, 아랫배, 윗배, 등살이 많은 사람에게 효과가 크다. 또한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도 쉽게 뺄 수 없는 허벅지 안쪽, 엉덩이 아래 부위 등이 문헌 지방으로 인해 몸매 가꾸기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다이어트를 하거나 몸매를 만드는 것은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해 이루는 것이 기본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가꾸지 않고 방치한 몸을 운동만으로 되돌리기에 힘든 경우가 많다.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고, 과도한 수술을 하지 않는 적절한 시술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아름다운 몸매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효능을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약을 복용하거나 효과가 의문시되는 부정확한 다이어트 부작용에 시달리기보다는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법과 운동법을 찾기 바란다.

〈에스엠시형외과 원장〉

기고



정운섭

해가 갈수록 우리농촌은 40~50대 젊은 농군이 급격히 줄어들고 60~70대가 농업, 농촌을 지탱하는 형태의 고령화,부녀화로 가속화 되어간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꾸민 농촌의 꿈과 희망을 버릴 수 없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50년 이상 꾸준히 실시해 온 영농기술 교육서비스가 농업인들한테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결핵이 아직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점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결핵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질병이다. 농민들은 결핵을 앓고 있으면서도 자각증상이 없어서 모른 채 지낸다. 또한, 결핵 사실을 알어도 농사일에 바쁘다 보니 치료를 게을리하고, 그 와중에 결핵균이

농업특성과 및 여름철 현장 영농기술교육, 농업인대학 교육, 영농정착 신규농업인 교육, 농업인 정보화 교육,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연찬교육,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등 연중 6800여명이 교육을 받으면서 영농에 필요한 지식을 쌓고 있다.

최근에는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농사를 처음 접하는 퇴직자, 귀농인, 다문화가정 등 도시민들의 교육 참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발맞춰 여수시는 올해 128농가, 5년 후인 2015년에는 500농가 이상의 강소농경 영체제를 만들어 소득 10%를 올릴 수 있는 농업 맞춤형 비즈니스 모델개선 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금년에는 식량작물 30농가, 채소 42농가, 과수28농가, 화훼 14농가, 특용작물 10농가, 축산 4농가가 참여했다. 연

강소농(強小農)이 농업의 미래다

농민·중고등생 결핵환자 치료·관리 신경써야

며칠 전 고향의 50대 젊은 어르신이 결핵으로 작고하셔서 문상을 다녀왔다. 도시에서조차도 길거리의 노숙자가 줄어들지 않아서인지 후진국형 전염병인 결핵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농촌 역시 결핵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듯하다.

결핵이 아직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점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결핵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생명을 앗아간 질병이다. 농민들은 결핵을 앓고 있으면서도 자각증상이 없어서 모른 채 지낸다. 또한, 결핵 사실을 알어도 농사일에 바쁘다 보니 치료를 게을리하고, 그 와중에 결핵균이

내성이 생겨 치료도 잘 안 된다. 결핵은 일단 발병이 된 후 꾸준하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만 하면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이지만, 이 노력을 게을리하면 재발하는 악성 질병이기도 하다. 특히 치료약을 불규칙하게 먹을 경우 결핵균의 내성을 길러져 더 악화시킬 수 있다.

또한, 농촌 말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쪽이 중고등학생들이다. 학업과 입시 때문에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식사를 잘 거르고, 다이어트 한다며 영양을 소홀히 해서 결핵균이 침투하기 딱 좋다고 한다. 그 때문에

학생들 중 결핵환자가 적었다고 한다. 당국은 농민들과 중고등학생들에게 결핵 실태를 제대로 알리고 환자를 확실하게 파악해 완치될 때까지 관리하고 치료해야 할 것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로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설

자연재해 피해 어민 보상 기준 현실화돼야

태풍 '미우파'로 큰 피해를 당한 전남 서남해안 지역 양식어민들이 자칫 길거리로 나왔게 됐다. 어가 당 수익 원액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의 보상한도가 5천만 원에 불과한데 대부분의 양식어민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태풍 피해를 본 전북양식장의 경우 어가 당 보통 30만~40만비를 키우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1억~1억5천만 원 정도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배와 바지선 등 양식시설까지 파손됐을 경우 5억 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예상된다. 현재의 보상한도로는 복구는 커녕 버티기에 올라앉게 된 셈이다.

재해보험 역시 어민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3억 원 보상을 기준으로 연 170만 원에 이르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어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 또한 부실운영으로 보상을 받은 지역수협이 가입기관으로 지정된 점도 재

해보험 외면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안도의 경우 재해보험 가입 어민이 61여가에 그치고 있고 이번에 피해를 본 어가 중 보험가입 어가는 18여가로 20%에 불과했다.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해는 갈수록 빈번해지고 대형화되고 있다. 최근 6년 동안 전남지역에서 연간 3건의 재해발생으로 146억 원의 피해가 난 것만 봐도 자연재해는 이제 상례화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보상 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 특히 현재 25%에 지나지 않은 시설복구비의 국고지원율도 대폭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 래야 어민들이 스스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않겠는가.

이와 함께 재해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어민들 역시 다소의 부담이 되더라도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광양제철 야적장 주민피해 두고만 볼 건가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비산먼지 방지 시설 없이 제강원료용 고철 12만톤을 야적한 채 작업하는 바람에 쇳가루와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또한 고철야적장에는 비가림시설도 설치되지 않아 우기시 빗물을 타고 고철에서 흘러나온 불순물이 그대로 광양항에 유입돼 해양 오염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주민들에 따르면 후관광장 야적장에서 고철 작업 중 발생하는 미세한 먼지와 쇳가루, 소음 때문에 아파트 창문을 열기가 어렵고 시커먼 먼지가 끊이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8만여 명이 거주하는 이 지역은 야적장과 직선거리로 1Km 내외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를 시정토록 해야 할 광양시는 "제철소 내에 방대한 분량의 고철이 적치되어 있는지 몰랐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니 직무유기나 다를 바 없다. 특히 지난 8일 야적장의 빗물 배수

펌프가 고장난 상태로 방치된 사실을 뒤늦게야 알았다는 것도 관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단적으로 말해준다.

광양제철소 역시 문제가 불거지자 대안 제시 없이 "항후 고철 관리를 위한 투자계획을 세워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만 언급해 과연 세계적 기업의 자세가 아닐까? 그대로 광양항에 유입돼 해양 오염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급속도로 증가하는 주민들에 따르면 후관광장 야적장에서 고철 작업 중 발생하는 미세한 먼지와 쇳가루, 소음 때문에 아파트 창문을 열기가 어렵고 시커먼 먼지가 끊이지 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8만여 명이 거주하는 이 지역은 야적장과 직선거리로 1Km 내외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를 시정토록 해야 할 광양시는 "제철소 내에 방대한 분량의 고철이 적치되어 있는지 몰랐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니 직무유기나 다를 바 없다. 특히 지난 8일 야적장의 빗물 배수

無等鼓

암흑의 월요일인 '블랙먼데이'(black monday). 뉴욕의 다우존스 평균 주가가 하루에 22.6%나 폭락한 1987년 10월 19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 주식파동은 수일 내 일본, 영국, 싱가포르, 홍콩시장에서 큰 폭의 주가 폭락을 가져와 전세계적으로 1조 7000억달러에 달하는 증권 투자 손실을 초래했다.

이같은 암흑의 월요일 '블랙먼데이'가 지난 8일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전세계 경제에 극심한 공포가 드리워지면서 한국에서도 현실화 됐다. 주가가 지수 하락거리 매도 사이드카(Side Car·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정지)와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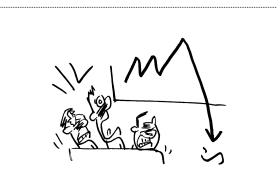
브레이크(Circuit Breakers·코스닥 시장 매매거래 일시 중단)가 발동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이 패닉상태에 빠졌다. 9일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10일에는 주가가 다소 반등했지만 아직은 쉽사리 판단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설립된 1941년

이후 70년 만에 처음이다. S&P의 발표 이후 해외에서는 "달려 물락의 서막"(序幕)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국제경제 질서의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각각의 공조를 통해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주요 경제권이 모두 재정 불안에 시달리면서 추가로 투입할 구원

투수가 마땅히 없다. 더불어 우리 경제도 최악의 사태를 염려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해외 변수에 유난히 취약하다. 미국 등 주요 국가 경기의 부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직격탄을 맞고 경제성장률이 불려코스터를 탄다. 증

시와 외환시장도 흔들린다. 금융 및 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해법을 찾는 게 급선무다.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정부, 정치권, 기업, 국민이 모두 한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최재호 정경부 차장 lion@kwangju.co.kr

블랙먼데이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간인)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대응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다 지 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